

# 산업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해 모두가 협력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극단주의로 치닫는 양상이 마치 두 대의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형상 같다고 표현되더니,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던 정국이 더 어수선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이는 동반 추락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듯 싶어 보이기까지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경제적인 여파인데,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불황으로 대기업에서조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재해발생이 증가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최근의 재해율의 양상과 경제불황 이후에 재해가 증가하였던 선진국의 예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조 동 란 교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

최근의 발표를 보면 산업재해율은 줄어들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재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사업주의 투자기피에 따른 안전보건대책의 소홀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의식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낮아서 안전의식 고취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불황에 허덕이는 마당에 무슨 안전보건 의식의 확산이냐고 하겠으나, 이러한 시기야말로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에 대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된다.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해지고, 해고 불안에 따른 심리상태의 불안정과 심신의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하여 직업병과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범국민적으로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을 통하여 몸에 배게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필자가 수년 전 독일의 건강BG(산재보험조합)을 방문하였을 때 유치원 아동용 안전 교육지침서와 유치원생을 위한 안전달력을 보고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무릎을 쳤던 일이 생각한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산업안전공

단이 주축이 되어, 초·중등 학생의 교육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고 각급 학교의 교사와 사회지도급 인사를 교육하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홍보전시관과 건설안전체험학습장을 견학시키는 등의, 안전문화정착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미흡하므로, 최근 산업안전교육원에서는 산학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의 교육대상은 안전공학, 산업위생학, 환경위생학, 간호학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의 학생들이지만 앞으로는 기타 학과에도 문호를 넓혀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관리자와 사업주들은 어렸을 때부터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기초교육과 계속교육 등이 필요함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많은 근로자들의 해이해진 안전보건의식을 강화시켜 주는 계속 교육 또한 더 없이 중요하다. 30년 경력의 숙련공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절단사고를 당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직업병에 걸리는 등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안전보건의식은 반복 교육을 통해 느슨해질 틈이 없이 계속 강화해 주어야만 확고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의하여 사업주의 교육은 폐지되고 근로자들의 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인데 그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신규 보수 직무교육조차도 자율화 된 현실이, 바로 사망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지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 특히 교육부문에 대한 조치는 조속히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므로 사업주의 의무교육으로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IMF 경제체제 하에서 가장 먼저 삭감된 것이 교육비와 홍보비라고 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이상적인 교육이 지금 당장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제도와 현실이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최선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차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직접교육이 어렵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범국민적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며, 이 방법은 사업장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시간을 내어 주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에 잘 띄이도록 교육자료를 만들어 안전보건게시판에 수시로 게시하는 방법으로라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PC 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교육자료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교육비와 시간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면 통신교육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교육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밖에도 현재의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기관과 인력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제도와 방침을 탓하고 개선만을 바라며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자.

같은 뜻을 가진 모든 기관과 인력이 함께 노력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산업안전보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